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땐 여기서!
고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직장인은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또 아이들은 등교 대신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애를 먹는 사람으로 맞벌이 가정을 꼽을 수 있다. 아무리 단축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에서 종일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가 발 벗고 나섰다.

글: 이경현(고양소식 편집위원) 사진: 고양시 아동청소년과, 고양시 도서관센터

코로나19로 갈 곳 잃은 아이들

단축근무나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를 실행하지 않는 기업도 많고, 부모가 자영업자인 경우 아이 돌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학교라도 가면 그 시간 동안에는 학교가 아이의 돌봄을 책임져 주니 한시름 덜지만, 코로나19로 등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종일 아이의 돌봄을 온전히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면 된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영업제한 업종도 많아진 상황에서 특히, 자영업자 부모들은 수입이 줄어들어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다. 자칫 부모 중 한 명의 월급이 고스란히 아이돌보미의 수중으로 갈 처지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회사나 사업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익인 상황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가정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기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꼭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돌봄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다양한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위) 대화다함께 돌봄센터, (아래) 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 아이돌봄서비스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아이돌봄서비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 그냥 방치해야 할까? 그럴 수는 없다. 요즘 뉴스를 통해 알려진 방치된 아이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서툰 아이를 혼자 놔두는 것은 아이를 위험에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의 양육만 책임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물론 셈이 빠른 민간기업이 아이 돌봄을 사업화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사실 이런 문제야말로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해 줘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 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 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이에 고양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활용해 아이돌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간식비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3번째 다함께돌봄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친화적인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시는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2021년 작은도서관 아이

돌봄사업 공모'에 선정돼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덕양구 중앙로558번길 16-12)과 하늘벗 작은도서관(일산동구 중산로 101)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는 아이 1명당 하루 최대 5시간, 주 5일 범위에서 제공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지기 전까지는 긴급돌봄서비스만 제공된다. 이 두 곳은 이미 사업선정 당시 이용대상자 모집을 마친 상태이며, 고양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이나 해당 연령대의 학교 밖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 외부 강사를 초청한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지 못하며, 독서프로그램 및 개인 학습 보조, 인성교육 등의 프로그램만 진행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때

하늘벗 작은도서관 측에 따르면, 학교보다 집에서 더 가까운 까닭에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도서관에서 수시로 책을 읽는다는 것에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 왜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며 따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으니, 시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이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사업에 대해 널리 알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 모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 중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현황

구분	이용시간	이용인원	주소	문의
중산 다함께 돌봄센터	학기 중 14:00~19:00 방학 중 9:00~18:00	40명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73-2 모당 커뮤니티센터 3층	070- 5220- 2620
대화 다함께 돌봄센터	학기 중 14:00~19:00 방학 중 9:00~18:00	40명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121 (대화동 2570번지)	031- 923- 0818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평일 13:30~18:30	12명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8번길 16-12	031- 972- 5444
하늘벗 작은 도서관	평일 13:30~19:30 토(2·4주) 10:00~18:00	10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01	031- 975- 1740